

INDONESIA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바탐 강재모, 김지연

선교사의 2021년 12월 선교 편지

12월 성탄 심방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7일간에 걸쳐서

약 103가정 150여명의 학생들을 심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치는 날에는 심방 대원들 모두가 아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좀 더 다가가야 함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어 하는 부모님의 아픈 마음들을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모두가 직장에 대한 기도제목이 무척 많았습니다. 학교, 가정, 교회, 사회 모두가 함께 복음 안에서 귀한 동역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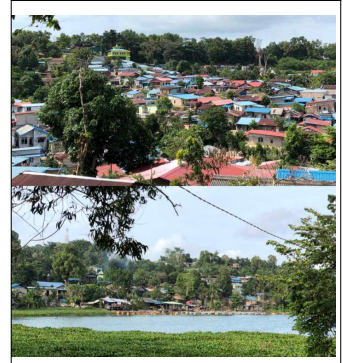
2. 선교 편지 # 페이스 북을 통하여 나누었던 사역들을 사진과 함께 나눕니다.

- 올해는 **105가정 약 150여명의 학생**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약 5년 전부터 매년 성탄을 앞두고 12월에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가정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여 대상자들이 학교에 와서 받아 가도록 하였습니다.
- 마음이 어려운 이들에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마스크를 쓰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첫 날 14가정에 성탄의 선물, 기도를 심었습니다. 가정심방 소식에 수년간 단기선교 방문을 하였던 ㅇㅇㅇ 교회 청년들이 헌금해 주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임마누엘



3일째 성탄 가정 심방을 하면서...

- 지난 5년간 많은 곳을 심방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처음 방문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높은 언덕 위의 집, 호수 아래 낮은 도랑 옆의 집,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잠시 바라보았던 곳을 직접 깊숙이 걸어 들어가니,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가장 많은 기도제목은 가족의 건강과 생계를 이어갈 일자리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는 가족이 많았고,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예상 보다 많았습니다.
- 방문하는 곳들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가끔은 길을 다시 돌아가거나 한참을 헤매지만, 매 년 심방의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심방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5분~1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105가정을 방문해야 하기에 기도제목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만 가지게 됩니다.
- 오늘은 약 4시간 반 동안 23가정을 심방 하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신고를 약 50번 하고 높은 곳을 올라 갈 때는 모두들 숨차하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즐겁게(?) 다니며 힘차게 뜨겁게 기도하는 심방팀에게 감사, 감사. . 이제 목표 심방 가정 105가정 중 59가정 완료. . 심방 중 너무 덥지 않도록. . 비 오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세요



오늘은 스물 두 가정 심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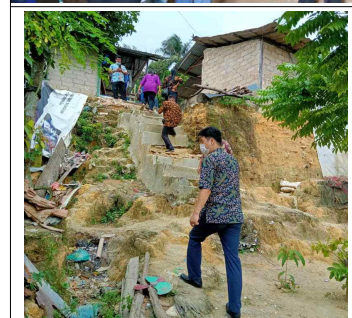
다음 주에는 학교 성탄 예배가 계속 있어서 무리를 하여 이번 주간에 최대한 성탄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명이 함께 가정 방문을 하니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반갑게 맞이한다.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 이상으로 밝다는 것이다. 아마도 에벤에셀 학교 선생님께서 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오늘은 산자락에 지어진 학생들의 집을 심방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소가 있어도 외부인은 길을 알 수가 없기에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의 안내를 받아 다녔습니다.
2.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 방문하고자 점심 이후 한 낮에 심방을 하려니 무척이나 더운 인도네시아 날씨에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3. 차량 운전 담당. 선물 담당. 기도 인도 담당. 길 안내 담당 등 역할을 나누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방을 하려고 합니다.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른 일정으로 10가정만 심방을 하였습니다.
4. 앞으로 이틀 정도 더 하면 목표 심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 심방을 통해 새로운 만남의 축복에 감사, 더욱 알아가고 이해하게 됨에 감사, 이렇게 좋은 심방 사역을 더 자주 해야겠습니다.

비 오는 날의 심방. . .

1. 점심을 함께 먹고 힘차게 성탄 심방 5일째 사역을 출발 하였습니다. 오늘 목표 심방 20가정, 7가정 정도를 했는데, 하늘이 점차 어두워 지며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방문하는 곳이 대부분 흙으로 된 땅이라서 비가 오면 다니기가 힘든데. . .
2.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해야 하기에, 10가정을 마쳤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 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차량 안에서 약 10분간 기다리다가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어 그 집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벌써 물 웅덩이가 생겨 구두를 신고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방을 갈 때도 선생님 중 몇 분은 샌달을 신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장 바지에 샌달은 좀. . . 저도 어쩔수 없는 한국 목사라 구두가 마음이 편합니다.
3.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며 기도제목만 물어 봤는데 눈물부터 글썽이는 학부모들, 남편을 이야기하며, 아이를 이야기하며, 시골의 아픈 부모님을 이야기하며 눈물 짓는 이들, 기도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어머니,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 .
4.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가장 낮은 자리인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위로가 성탄 심방을 통해 전해 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웃으며 기쁨으로 함께 동행한 심방대원들에게 감사,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길. . . 비온 날 13가정 심방케 하신 주님께 감사!



1. 지난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 성탄 가정심방을 **오늘까지 총 103가정** 모두 마쳤습니다. 학생 수로는 약 150여명 학생들과 부모님을 만나 그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통성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 심방을 통해 만난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시 보게 되면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체 여러 학생으로만 보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한명씩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름도 집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더욱 가까워진 마음에 다시금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몸이 많이 아픈 아이,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3.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2021년 12월, 1월 기도 제목 <1억 원의 1회 현금보다 1일 1분의 기도가 더 큰 힘이 됩니다. >

1. 에벤에셀 학교 2022년 신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

- 12월 28일 현재(목표): 유치 27명(72), 초등 1학년 66명(105), 중등 1학년 25명(68) 고등 1학년 9명(40)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대부분이 무슬림 교사로 학교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음)로 아이들을 진학 시켜려 합니다.

2. 1월 현지 인도네시아 교회 설교

- 2022년 1월 2일 바투아지 교회(에디 목사님) / 9일 GPD 교회 (오스카 목사님)
- 16일 에바다GBI 교회 (요하네스 목사님) / 23일 마리나GBI (사바르도 목사님) / 30일 GBI 띠반 교회

3. 에벤 에셀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하여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 저희 학교의 학비는 매월 초등생의 경우 약 2만원, 중등생은 약2만 5천원, 고등생은 약3만 5천원 입니다 (현재 약 150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약 300여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2022년을 준비하며 <에벤에셀 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 위하여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각 3곳의 도서관에 좋은 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권 1만원의 후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 1차 목표 1천권)

아이디: kangjaemo1004

kangjaemo@hanmail.net

후원계좌 + 혹시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1002-730-785647 (예금주 강재모): 인도네시아(YPKI) 선교재단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KEB하나은행 010-0406394-177 (GMS강재모/김지연): 한국기관(GMS-총회선교)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